

#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택시 운영 시작

(사)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 목포지회와 업무 협약 체결  
“이용자 접근성·참여율 높여 돌봄 부담 경감할 것 기대”

목포시치매안심센터가 지난 8월 28일 (사)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 목포지회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치매 어르신 안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했다. 송영서비스는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택시를 타고 센터에 방문해 프로그램과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프로그램 참여자, 치매 검진 대상자, 치매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검진 일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정해진다. 시는 치매안심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택시 내부에는 치매안심택시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가 치매 예방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목포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가 이용자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만 60세이상 전 시민 대상으로 매년 1회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비 확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 관련 문의사항은 목원동 트윈스타 3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270-4271,427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위생관리 우수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받아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된 45개소의 모범음식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 1, 2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택시 및 우편 신청도 가능)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좋은 식단 이행기준’과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에 이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군 누리집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50L) 월 3개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산 군수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업소 지정을 통해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암 대표 빵과 디저트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승희 영암군수, 카페·제과점주와 목요대화 열고 특산물 디저트 활성화 모색

영암군이 8월 31일 군청에서 카페, 제과점 영업주 10여 명과 ‘제30차 목요대화’를 열었다. ‘특산품을 활용한 영암 대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이날 목요대화에서 영암주들은,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가게 운영 애로사항을 전하고, 특산물을 재료로 한 디저트 생산·판매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의 의견들은 영암군 대표 디저트 생산·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와 대대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아졌다. 이날 영암주들은 자신들의 매장에서 판매

중인 무화과 빵과 피낭시에, 고구마 티라미수, 대봉감 요거트무스케이크 등 빵과 디저트를 준비해와 전시하고 우승희 영암군수와 함께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오늘 시식회로 영암을 대표하는 빵과 디저트 생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암의 좋은 땅에서 숨겨 좋은 영암사람들이 재배한 특산물로 만든 음식이 전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대화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 참깨 재배면적 전남 1위

신안군 임자면은 예로부터 참깨, 들깨 재배가 많아 들깨 임(佳)자가 붙여졌고 지금까지도 참깨 재배면적은 신안군이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깨는 마늘·양파 후작물로 멸칭 비난을 재 활용하는 재배방식과 노령화된 노동력, 영세한 경영규모로 재배면적에 비하여 생산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참깨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가공단지 구축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하니울’참깨를 도입하여 수확 과정의 노동력을 98% 줄이고, 공동 육묘장·건조장을 설치하여 공동 영농을 통해 경영 주체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 함평군, ‘쌀 누룩 활용 발효 음식 개발 교육’ 성료 전통음식문화 계승 및 쌀 소비 촉진 계기 기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쌀 누룩 활용 발효 음식 개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일 군에 따르면 함평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함평군 우리음식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동시에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에서 회원들은 쌀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으로 쌀 누룩을 활용한 미(米)거트, 소금, 장류 등의 제조 방법을 배우고 실습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전통 음식 관련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영광군, 9월에는 먹깨비로 주문하면 5천원 할인받아요

영광군은 영광 군민의 날,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맞이하여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3주간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주문하면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에서 1만 5천 원 이상 주문하면 5천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한 사람당 매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되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쿠폰은 이벤트 기간 내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먹깨비는 총전시 10% 인센티브를 받는 영광사랑카드도 결제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9월 군민의 날과 불갑산상사화축제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벤트 기간 내에 먹깨비로 주문해서 할인 쿠폰도 받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에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